

한국육상 '왕 중 왕' 뿔는다

오늘 광주월드컵경기장서 그랑프리대회 개막

임희남·김덕현 등 광주대표 금빛 질주 기대

한국 육상의 왕중왕을 가린다.

2015년 하계U대회 유치 기념 2009 한국 그랑프리 육상대회가 30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대한육상경기연맹 주최, 광주시육상경기연맹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종목별 상위 랭킹 8위까지 출전해 최고의 기량을 펼침으로써 진정한 명승부를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 최대의 하이라이트는 100m, 국내 정상급 임희남(광주시청)·여호수(성결대)·김국영(광춘정보산업고)의 불꽃 튀는 기록 대결이 기대된다. 육상 관계자들은 이들의 라이벌 질주 결과 한국신기록 경신도 은근히 바라고 있다. 고교 선수 김국영과 임희남은 현재 10초47로 같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호수가 10초49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임성훈(안양시청)·이준화(서천

군청)·오경수(한국체대)·황현태(전남체고)·김세중(성균관대) 등도 톱티어 금빛 질주를 노리고 있다.

110m 허들에서는 박태경(광주시청)이 13초86으로 이 대회 참가자 중 가장 좋은 기록을 갖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이현우(국군체육부대·14초35)·민경도(경북체고·14초47)가 바짝 추격하면서 1위 끝인을 넘보고 있다.

세단뛰기는 김덕현(광주시청)이 독보적이다. 김덕현의 최고 기록은 17m10.

고대영(황성군청)이 16m13, 이강민(문경시청·16m04) 등이 기록으로는 김덕현에 한참 뒤처져 있다. 하지만 경기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 순위 변동의 이변은 나타날 수 있다.

출전자들은 고·대·일반부 모든 종별에서 올시즌 기록을 기준으로 선발됐다.

이번 대회는 총 21개 종목으로 남자부는

100·400·800·110m 허들 등 10개 종목, 여자부는 100·400·100m 허들·장대높이뛰기 등 11개 종목에 걸쳐 최고의 건각들을 뽑게 된다. 대회 우승 상금은 150만원이다.

이번 대회 출전자 중 광주·전남 소속 남자부 선수는 모두 9명.

먼저 광주시청 소속이 임희남(100m)·박태경(110m 허들)·김덕현(세단뛰기)·오진욱(높이뛰기) 등 4명으로 가장 많고, 조선대 소속 선수가 이성(높이뛰기)·윤종배(세단뛰기)·김대업(장던지기) 등 3명이다. 5천m 경기에 해남군청 이두행이 출전하고, 전남체고 이형복은 유일한 고교선수로 400m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친다.

여자부 경기에선 지난 26일 막을 내린 제9회 전국체전에서 육상 4관왕(100m·200m·400mR·1천600mR)을 차지하며 대회 MVP 영예를 안은 김하나(안동시청)도 참

가한다.

한편 이번 대회를 앞두고 육상국가대표 선수단 38명(선수 22명·코치진 16명)은 지난 23일부터 광주에서 전지훈련 캠프를 차리고 몸만들기에 주력해 왔다. 임희남 등 단거리 5명, 박태경 등 허들 5명, 김덕현 등 세단뛰기 3명, 오진욱 등 높이뛰기 3명 그리고 투창 4명, 장대높이뛰기 2명이 참가했다.

단거리·허들·장대높이뛰기 선수들은 월드컵경기장에서, 세단뛰기와 투창·높이뛰기 등 필드종목은 광주체고 운동장에서 각각 훈련해 왔다.

대표팀을 이끌고 내려온 이진일 주무는 "그랑프리대회가 광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체전 끝나고 바로 광주에 캠프를 차리게 됐다"면서 "무엇보다도 시설도 좋고, 날씨도 서울 보다 따뜻하기에 광주를 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주무는 "특히 이번 훈련에 광주육상경기연맹측의 협조 덕에 어려움없이 편하게 훈련했다"고 덧붙였다.

국가대표팀은 이번 대회가 끝나면 일부 종목 선수들은 목포로 내려가 제2 훈련 캠프를 차린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신지애> <오초아> <박세리>

신지애-오초아 오늘 샷 대결

LPGA 투어 챔피언십 개막

올해의 선수·상금왕 경쟁

국내에서 세계적인 여자골퍼들의 환상적인 샷대결이 펼쳐진다.

LPGA 투어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이 30일부터 사흘간 인천 스키야드 72골프장 오션코스(파72·6천490야드)에서 열린다.

올시즌 남은 4개 대회 중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총상금 170만달러(우승상금 25만5천달러)로 일본에서 열리는 미즈노 클래식(총상금 140만달러), 멕시코 대회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10만달러), 미국에서 열리는 마지막 대회 LPGA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150만달러)보다 상금이 많다.

'한국골프의 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와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의 우승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LPGA 정규 챔피언십 첫해를 보내고 있는 신지애는 이미 신인왕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의 선수, 상금왕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최저타수 부문에서도 신지애는 건발의 차로 4위(70.36타)에 올라 있어 남은 LPGA 투어 4개 대회의 결과에 따라 충분히 역전도 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홈코스에서 열리는 만큼 신지애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컵을 차지하면 각종 타이틀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된다.

오초아는 시즌 전반기에 2승을 거둔 뒤 이달 말 할 성적에 내지 못했다. 이달 초 열린

나비스타 LPGA 클래식에서 우승하며 타이틀 경쟁에 다시 뛰어들었다. 다승 부문에서 신지애와 공동 선두(3승)에 오른 오초아는 올해의 선수 포인팅에서 131점을 쌓아 신지애(136점)를 바짝 뒤쫓고 있다. 또한 최저타수 부문에서 1위(70.16타)를 지키고 있는 오초아는 상금 랭킹에서는 5위로 밀려 있지만 우승 한두번에 순위는 뒤바뀔 수 있다.

신지애는 "코스 상태가 좋으면 날씨가 어떨 지가 변수"라며 "약간 피로가 있는 편인데 빨리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남은 4개 대회에 대해 "몇 번 우승을 하겠다는 것보다 꾸준히 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신지애는 "대회가 다른 곳에서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이 들 것이다. 체력 변수 등 매주 적응을 잘해서 꾸준히 쳐야겠다"고 말했다.

다관왕 목표에 대해 "욕심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시즌 목표였던 1승과 신인왕을 이룬 만큼 조금은 여유가 됐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8회째 맞는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은 한국 선수들이 잇따라 우승해 LPGA 투어로 가는 등용문이 됐지만 2007년에는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2008년에는 캔디 쿡(대만)에게 2년 연속 우승컵을 넘겨 줬다.

LPGA 투어 멤버인 최나연(22·SK텔레콤), 지은희(23·힐라코리아)는 물론 국내 1인자 서희경(23·하이티)을 비롯해 유소연(19·하이마트), 안선주(22·하이마트) 등도 세계 정상급의 플레이를 펼쳐 보일 전망이다. /서승원기자 swseo@연합뉴스



지난 23일부터 광주에서 전지훈련 캠프를 마련한 육상국가대표들이 30일 개막하는 2009 그랑프리 육상대회를 하루 앞둔 29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가볍게 몸을 풀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종범·이대진·김상훈·장성호 FA 명단에

KBO, 한화 김태균·이범호·히어로즈 송지만 등 27명 공시

KIA 타이거즈 이대진·이종범·장성호·김상훈이 자유계약선수(FA) 명단에 올랐다. 특히 이종범과 장성호는 2006년에 이어 두번째로 FA 자격을 획득했고, 김상훈은 첫번째이다. 투수 이대진은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9일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2010년 FA 2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KBO는 한국시리즈가 끝나고 5일 지나 FA 자격 요건을 갖춘 선수를 공시한다는 규약에 따라 이날 명단을 공시했다.

구단별로는 FA 최대어로 꼽히는 김태균·이범호가 소속한 한화와 이승용·송지만의 히어로즈가 6명으로 가장 많고 KIA·SK·LG가 4명씩, 롯데 2명, 삼성 1명으로 총 27명이다. 포지션별로는 투수 7명, 포수 5명, 내야수 9명, 외야수 6명 등이다.

타자는 매시즌 페넌트레이스 경기 수의

% 이상 출전, 투수는 규정 투구 횟수의 % 이상을 투구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하면 FA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페넌트레이스 1군 등록일수가 150일(2006년부터는 145일) 이상인 경우에도 1시즌으로 간주한다.



자격을 얻은 선수는 내달 1일까지 KBO에 FA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KBO는 2일 이를 공시한다. FA로 승인된 선수는 12일까지 전 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13일부터 12월2

20-20 클럽 가입 추신수 금의환향

이번 시즌 20홈런-20도루 클럽에 가입하며 메이저리그 진출 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내달 3일 입국한다. 추신수의 국내 측근은 29일 "추신수는 3일 입국해 4일 오전에는 국내 매체를 상대로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라며

일까지 전 소속구단을 제외한 다른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그때까지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12월 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모든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간을 넘겨서도 어떤 구단과도 계약하지 못한 선수는 내년도에는 8개 구단과 계약할 수 없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다만 출국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신수는 국내에 머무는 동안 KBS 2TV 예능프로그램 '천하무적 토요일-천하무적 야구단', MBC TV 'MBC 스페셜' 등의 녹화에 참여할 예정이다.

2000년 시애틀 매리너스와 계약해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한 추신수는 올해 처음으로 규정타석을 채웠고 타율 0.300을 때렸다. 4번 타자로 주로 나서서 홈런 20개와 도루 21개를 작성해 아시아 출신 타자로는 처음으로 20홈런-20도루에 가입했다. /연합뉴스

박찬호의 필라델피아 먼저 1승

월드시리즈 ... 어틀리 연타석 홈런 양키스 꺾어

박찬호(36)의 소속팀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에서 먼저 승리를 챙겼다.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팀으로 2년 연속 내셔널리그를 평정한 필라델피아는 2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시 뉴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 챔피언 뉴욕 양키스와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체이스 어틀리의 연타석 솔로포와 선발투수 클리프 리의 완투수에 힘입어 6-1로 완승했다.

2차전은 30일 같은 장소에서 오전 9시 열린다. 지난해까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한술밥을 먹었고 2007년과 2008년 차례로 투수 최고 영예인 사이영상을 받은 C.C 사바시아(양키스), 리(필라델피아) 두 왼손 투수가 선발 대결을 벌인 1차전은 예상대로 팽팽한 투수전 양상을 띠었다.

1회초 2사 만루 선취점 찬스를 놓친 필라델피아는 3회초 0-0 균형을 깬다.

첫 타석에서 볼넷을 얻었던 어틀리가 사

바시아와 9구까지 가는 접전 끝에 몸폭에 낮게 박힌 시속 153km짜리 빠른 볼을 그대로 퍼올려 우측 펜스를 넘어가는 포물선을 그렸다.

어틀리는 1-0 삼연승 리드를 지키던 6회초에 1사 후 바깥쪽 154km짜리 광속구를 잡아당겨 오른쪽 스탠드 중단에 떨어지는 1점짜리 대포를 터뜨렸다.

승리의 일등공신이 된 어틀리는 이날 포스트시즌 26경기 연속 홈투리는 신기록도 세워 두 배의 기쁨을 누렸다.

필라델피아는 2-0이던 8회초 라울 이바네스의 2타점 적시타를 날려 4-0으로 달아났고 9회초에는 지미 롤린스와 라이언 하워드 의 안타로 2점을 보태 해기를 맞았다. 타선 지원에 힘을 얻은 필라델피아 선발투수 리는 9이닝 동안 삼진 10개를 슈어내는 역투를 펼치며 개인 통산 첫 월드시리즈 첫 승리를 낚았다. 박찬호의 '꿈의 무대' 첫 등판은 다음을 기약했다. /연합뉴스